

석유화학, 2009년 생산·수출 반토막

산업연구원, 생산증가율 3.5%에 수출 8.7% … 자동차·섬유는 감소

2009년 제조업 생산이 2008년 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과 자동차의 생산이 5%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
산업연구원은 11월27일 발표한 <2009년 경제·산업전망>에서 10대 주요 업종 가운데 철강(-5.2%)과 자동차(-5.1%), 섬유(-0.8%), 가전(-0.5%) 등 4개 업종의 2009년 생산이 2008년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.

연구원은 조선과 석유화학, 정보통신기기, 가전, 디스플레이 등 5개 업종의 생산 증가율은 2008년 보다 낮아지며 반도체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.

자동차 생산은 내수 감소와 수출여건 악화, 해외 현지생산 증가 등에 따라 5.1% 줄면서 2008년 3.2%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과 미국, 체코 등 해외 현지생산 증가에 따른 수출 대체 등으로 2.0% 줄어들고 내수는 자산가치 하락, 실질 구매력 감소, 자동차 할부상품 위축 등에 따라 2.5%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.

철강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과 자동차 생산 감소 등에 따라 5.2% 줄어 2008년 6.6% 증가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며, 수출은 국제가격 급락에 따라 3.8% 감소하고 내수도 건축부문의 위축에 따라 5.9%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.

조선은 증설된 선조설비의 가동 등에 따라 25.1% 증가하겠지만 발주량 감소와 일부 선종의 선복 과잉 등에 따라 2008년 생산 증가율 65.7% 보다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.

조선 수주량도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의 발주량 감소로 40% 정도 줄고 수출 증가율도 2008년 42.2%에서 19.8%로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섬유는 원화대비 달러화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에 힘입어 수출이 1.8% 증가하겠지만 내수가 1.1% 감소하면서 생산은 0.8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.

가전은 2008년 베이징(Beijing) 올림픽 특수로 수출이 5.1% 증가했지만 2009년에는 특수도 없고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2.3%, 생산도 0.5%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.

석유화학은 경기 불안에 따른 가동률 조정에 따라 3.5% 증가에 그쳐 2008년 증가율 6.8%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수출 증가율도 2008년 20.0%에서 8.7%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.

정보통신기기는 7.2% 증가하면서 2008년 13.4%보다 낮아지고 수출 증가율도 10.7%에서 3.6%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.

디스플레이는 2008년 19.5%에서 7.5% 증가에 머물고 수출 증가율도 19.2%에서 6.9%로 큰 폭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.

다만, 반도체는 제조공정 개선에 힘입어 생산이 4.4%에서 7.5%로 증가하고 수출 감소율도 10.7%에서 2.1%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.

이에 따라 2009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출은 4.4% 증가에 머물며 2008년 증가율 13.2%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11/27>